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World Best 공장」이룩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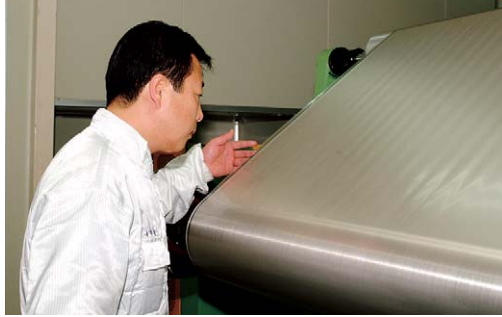
- (주)LG화학 울산공장 -

○ 산으로 향하는 길은 온통 파란 빛이다.

○ 하늘이 바다색을 닮은 건지, 바다가 하늘빛을 닮은 건지 시리도록 푸른 빛이 울산으로 인도한다.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곳, 그 넓은 바다가 있기에 더욱 푸근하고 너그러운 울산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으로 재해 근절을 이끌어 가는 (주)LG화학 울산공장을 찾아가 그들의 발자취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았다.

1974년에 설립되어 1,250여명의 임직원과 12개의 협력회사가 합심하여 바닥재류, 데코시트류, 자동차 내외장류, 가소제류 등을 생산하는 (주)LG화학 울산공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World Best 공장」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Total System을 전개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기본, 직원들의 마인드 형성을 위한 특화된 안전교육 철저

1989년부터 꾸준히 시행하여 온 시업전 미팅을 통하여 직원들의 안전마인드와 습관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00년부터 4년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STOP과 S&HT(Safety & Health Training) 교육으로 선진안전기법 및 활동을 익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적이고 업그레이드된 안전교육을 위해 전동지게차 안전교육이나 출하차량 운전자를 위한 교육 등 세분화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단기간의 이벤트나 성과물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교육·관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LG화학 울산공장은 안전을 위한 투자에도 인색하지 않다.

흔히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므로 긴축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미래에 무재해라는 더 큰 결실로 나타나는 100% 확실한 투자이기에 긴축재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주변 소방서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의 최신 소방차를 구입하여 소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내 종합방재센터 구축도 추진 중에 있다.

전문화된 RC의 효율적 추진과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안전활동의 조화

화학 산업의 안전, 환경, 보건 개선 활동을 위한 RC(Responsible Care) 프로그램



램을 추진하기 위해 전 세계 화학업계에서 모여 협의회를 만들었다. 현재 8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는 화학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제조, 판매,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안전과 환경, 인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활동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RC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이곳은 RC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사 RC 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공정안전, 오염방지, 비상 대응 등 RC 코드별 지침을 정해 시행중에 있다.

또한 월 2회 실시하는 안전캠페인을 통하여 직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출근시간을 이용하여 안전팀 식구들과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이 안전 계몽을 위한 전단지과 안전 문구를 새긴 사탕을 나눠준다. 어찌보면 그냥 평범한 사탕일지 모르나, 직원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달콤한 사탕이 어우러져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

정문에 우뚝 솟은 커다란 무재해 전광판 역시 직원들을 안전의 길로 이끄는 데 한 몫한다. 24시간 빛을 발하는 무재해 전광판은 직원들이 출퇴근시 한번씩 마주하며 안전의 중요성과 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건 IT 구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현장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41세인 이곳은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쓴다. 자체적인 건강관리실을 운영, 보건관리자가 상주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전문의 상담을 받도록 하여 바쁜 일상속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직원들의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한다. 고혈압, 당뇨병 등 유소견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는 물론 직원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작업 자체를 통제한다. 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개인의 이력 사항은 모두 전산화하여 보건 IT를 구축하였고 이로써 1,250여명에 달하는 임직원 모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성황리에 추진중인 것이 「금연펀드」이다. 금연을 희망하는 직원은 적립금을 걸고, 성공할 경우 적립금과 추가의 성과금을 받는 것이다. 금연펀드 실행 이후 100여명의 직원이 금연에 성공하였고 이에는 우리 환경안전팀이 앞장선다고 한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처리에서 벗어나, 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는 조병옥 환경안전팀장의 말처럼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마음 속에 뿌리내린 안전제일이 현장에서의 사고를 막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이다.

(주)LG화학 울산공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활동이 무재해 현장, 위험요소 Zero인 현장으로 이어져 정문앞에 서 있는 무재해 전광판이 그 빛을 더욱 밝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성호연 기자)